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성호경
+ 이달의 시작 성가 (55장 착하신 목자)
+ 출석확인과 인사 나눔
+ 소공동체 기도문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요한 6,51-58)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뇝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소공동체가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요한 6,51-58 그리스도의 성체성혈 대축일(교황주일)

1989년 세계 성체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그때 주제가 가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어 사랑의 성사를 세우신 예수"
성체 성사는 바로 사랑의 성사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성체성사이다.

사랑하는 이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다. 그러나 자신을 온전히 희생 하면서까지 내어 주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다. 가장 헌신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부모라면 혹시 모를까?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을 펠리칸에 비유하기도 한다. 펠리칸은 모성애가 매우 강하여 먹을 것이 떨어져 새끼가 굶게 되면 자기 가슴을 부리로 쪼아 피를 내어 먹인다는 속설이 있다. 부리로 자기 가슴을 쪼아 피를 흘려 새끼들에게 먹인다는 이런 모습은 당신 몸과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르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사랑 깊은 펠리칸, 주 예수님, 더러운 저, 당신 피로 씻어 주소서. 그 한 방울만으로도 온 세상을 모든 죄악에서 구해 내시리이다." (성 토마스의 성체 찬미가)

예수님은 당신의 이 고귀한 선물인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가 쉽게 받아 모실 수 있는 빵과 포도주의 형상 안에 담아두셨다. 비록 빵과 포도주 자체는 그렇게까지 귀하고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담긴 예수님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머물게 되면서 우리를 위한 영혼의 양식으로 변모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이 전하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인 자신의 몸과 피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그렇기에 미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는 작은 밀떡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온전한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것이며,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힘을 주는 생명의 빵임을 진심으로 느끼고 깨달아야 한다. 가끔 미사에 참여하는 신자들을 보며 성체에 대해 온전한 의미를 느끼는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수원교구 6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6월은 예수 성심성월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도록 노력합시다.

※ 매일 저녁 9시에 전신자가 가정성화를 위하여 주님의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신부님께서는 각 가정을 위해 강복해 주십니다. 가정과 공동체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기도 합시다.

‘읽고 푸는 성경퀴즈’

◈ 이 달에 읽을 말씀: 사무엘기 하권 **11-15**장

◈ 성서문제

1. 다윗과 하룻밤을 보낸 밧 세바의 남편 이름은 무엇입니까? (11,3)

2. 다윗과 밧 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모두 고르시오. (12,24-25)

   1) 요압
   2) 솔로몬
   3) 여디드야
   4) 암논

3. 괄호 안에 알맞은 단어를 써 넣으시오. (15,25-26)

   그때 임금이 (　　)에게 일렀다. “하느님의 (　　)를 도성 안으로 도로 모셔 가시오. 내가 (　　)의 눈에 들면 그분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어, 그 궤와 (　　)를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나는 네가 싫다’ 하시면, 나로서는 그저 그분 보시기에 좋으실 대로 나에게 하시기를 바랄 뿐이오.”

4. 압살놈은 암논을 미워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3,22)

5. 압살롬이 3년 동안 유배되어 있었을 때 요압은 누구를 이용하여 압살롬을 위해 다윗 왕에게 간청하게 하였습니까? (14,4)

◈ 말씀과 생활 나누기

다윗처럼 다양한 삶을 산 사람도 드물 것이다. 그는 유다 산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고, 수금을 타던 궁중악사였으며, 왕에게 신임 받는 군인이었는가 하면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병이었고 마침내 유다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왕이 되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하느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자기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 순리와 민심을 따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때를 분별하여 기다릴 줄 알았던 다윗은 경솔하고 기다릴 줄 모르는 현대인에게 소중한 가르침을 준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어떤 자세로 이루려 하는지 생각해 보자. 하느님의 때를 기다리기보다 자신의 능력과 수완으로 당장 이루려 들지는 않는지, 하느님의 이치를 따르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불만을 사더라도 억지로 이루려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겠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엠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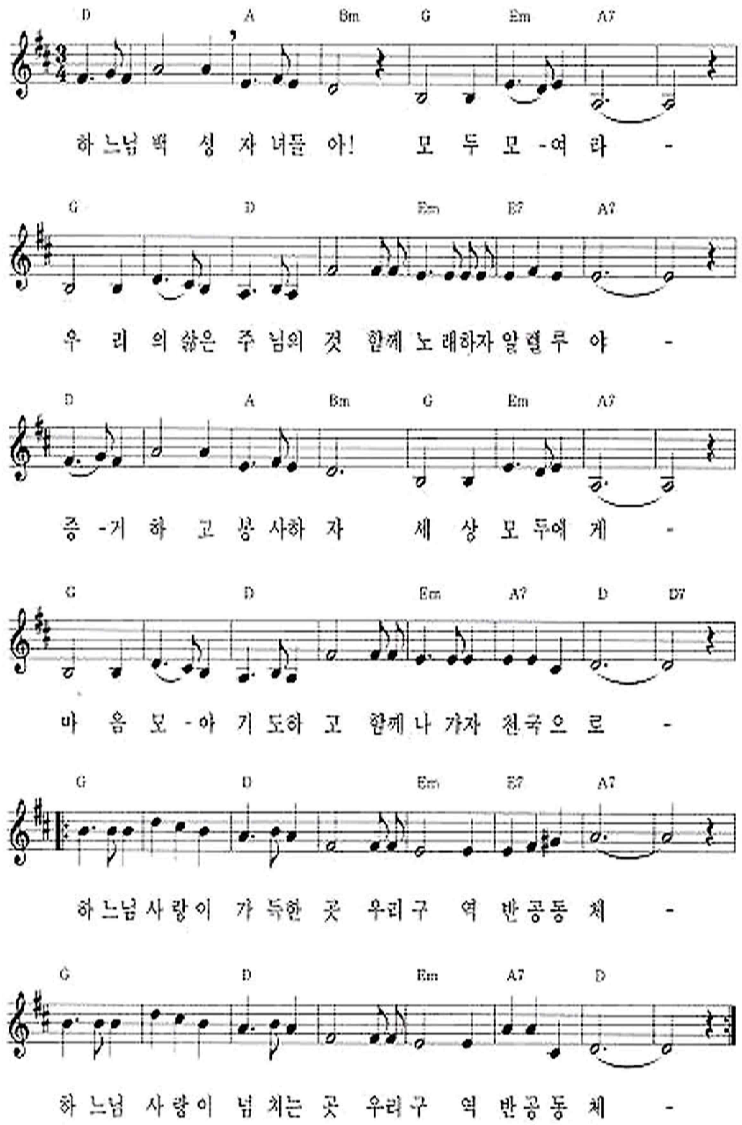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뵙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작사 현 정 수
작곡 현 정 수

기도하며...